

여백에 관하여 A Study on Margin

진정식*

목원대학교*

Jin jung-sik*

Mokwon Univ.*

요약

우주의 암흑이 빛이 없음이 아니고 암흑물질이며, 무극·태극이 하나이고 빈 공간을 비어 있다고 하지 않고 무(無)로 꽉 차 있다 하는 것처럼 미술에서 여백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negative space와 positive shape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공감을 형성하고 소멸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Abstract

Just as it is said that the darkness of the universe is not absence of light but the dark material itself, Moo-geuk and Tae-geuk are one thing, and an empty space is not empty but full of nothing, margin in fine art is a living space where negative space and positive shape do not exist separately but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combined into a unified space to perish ultimately.

I. 서론

연구의 목적

작품을 할 때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모든 대상의 표현이다.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대상을 감싸고 있는 공간들-여백들(negative space)-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미술에서 이러한 여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리기(또는 회화나 조각)를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이때 '설명해 낸다'는 것은 회화, 그리기, 또는 조각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공간도 하나의 형태다. 여백을 지각할 때 대상과 인물[미술 용어로는 '실체 형태(positive shape)']이 아닌 공간 사이를 잇는 경계 [미술 용어로는 '여백

(negative space)']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백은 쉽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지각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미술에서 여백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앎” 즉 “무지(無知)의 지(知)”의 파라독스가 지시하는 것처럼 negative space와 positive shape 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여백은 쉽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지각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난간 사이의 공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영역이다. 그리기에서 공간(여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여백에 대하여 과학적,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개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의 태근원(太根源)이란 우주의 삼라만상의 근원을 거슬러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인데 이것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발생하여 방사(放射)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말하는 만물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 혹은 특정 종교적인 의미와 구별하여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 창조적 지성체(Eternally Creative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ECI와 같은 존재는 자기 자신의 진화과정에서 끊임없는 창조활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우주를 가정하고 생각하면 에너지란 ECI의 창조 의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이며, 에너지가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서 '창조의지'(Will-To-Create)가 하나의 현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는 초광속(招光速)의 속도로 넓은 범주의 파장대에 걸쳐서 진동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어 한없이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란 태근원의 중심으로부터 혹은 ECI로부터 방사되어 나와 미분화된 우주의 모든 영역에 이르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장 지고(至高)한 실체다.

그러므로 에너지란 물질에 의한 속박, 광속의 속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제반 물리법칙으로부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우주의 모든 영역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는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으며, 완전히 순수하고, 어떠한 편견도 없으므로 '선' 혹은 '악'을 구별함이 없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는 직선과 같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틀에 박힌 운동방식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한결같다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 생명은 차이(差異)가 있어야 분화할 수 있는 법이다. 우주에는 다양한 파동을 가진 천심(天心)의 에너지가 신호

로 방사되어 비평형(非平衡) 상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명이 탄생한다. 이러한 신호가 방사되면 다양한 파동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일정한 주기성 혹은 한편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의 파동이 중첩, 수렴되어 에너지가 보다 조밀하게 응집되는 영역[에너지가 응집되는 장(場)]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의 파동이 소멸, 발산하여 에너지가 분산되는 영역(에너지가 감소하는 장)이 형성됨으로써 성질이 서로 다른 계(界)로 분화된다.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고 낮은 지역으로 분화되었으므로 에너지는 더 이상 평탄하고 일정하지 않게 분포한다. 에너지가 분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에너지가 흘렀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가 응집된 진동영역(장)이 생겨남으로써 에너지도 더 이상 임의로 흐르지 못하고 주위의 응집된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에너지가 분화되기 전에는 직선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파동의 저항이 적은 통로를 따라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에너지의 외부를 향한 운동형태는 점진적으로 보다 곡선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는 저항이 존재하는 에너지 응집영역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때 충돌하는 '각도'에 따라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의 회전방향이 결정된다. 지금까지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는 이때부터 음 또는 양의 성질을 부여받아서 양면성을 지닌 저차원의 현실세계로 진입한다.

2. 암흑물질

베라 루빈은 우주의 90%가 암흑물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들은 우주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MACHO 연구팀은 자신들이 찾아 낸 물체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절반 가량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조차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

많은 의문들을 남겨 놓고 있다. MACHO 연구팀은 암흑물질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그 밀도는 어떠한지, 중력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알아내는 원대한 일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문들이 단지 학자들의 관심사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의문에 답하는 것은 앞으로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

있을 수 있는 답들은 아주 편이하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우주가 극적으로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주가 하나의 특이점으로 수축해 가다가 대붕괴(Big Crunch)와 더불어 폭발해 소멸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당장 경고를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붕괴는 수 십억 년이 지난 뒤에야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한다 해도 팽창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속도를 늦추어서 영원히 팽창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우리 후세대들이 이렇게 편이한 미래 가운데 어떤 미래를 갖게 될지 판단하려면,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의 질량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적색 이동에 대한 허블의 관찰 덕분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관찰된 증거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은하(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더 가까이 있는, 그래서 더 젊은 은하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들 사이의 공간도 더 멀어진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공간 그 자체가 팽창한다는 뜻이지 개개의 은하 별 행성이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우주론자들과 천문학자들은 빅뱅이 만들어낸 외향적 폭발력이 우주를 바깥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팽창력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팽창력은 존재한다. 그 팽창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은하들을 관찰하고, 수시로 은하들의 속도를 점검하고, 은하의 빛을 굴절시켜 얻는 프라운호퍼선의 적색 이동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

론을 얻었다.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것은 무언가 팽창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는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팽창은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분명한 대항력은 중력이다. 뉴턴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물질이 많을수록 모든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뭉치게 하는 중력의 총량도 더욱 커진다. 물론 지금까지 우주는 계속 팽창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팽창력은 그에 반대되는 중력보다 조금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팽창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중력 효과를 지니고 있는 물질이 우주에 많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팽창력을 줄이다가 끝내는 없앨 정도로 충분한 물질이 있어서, 우주가 작아지기 시작해 갈수록 밀도 높은 덩어리로 변하다가 마침내 대붕괴와 더불어 폭발하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중력 물질이 팽창력을 저지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라면 팽창은 속도가 줄어들면서도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궁극적인 답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조차 어렵다. 우리는 분명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발견된 MACHO의 양은 암흑물질이 은하들의 회전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양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암흑물질이 있을 수 있는가?

한 가지 유망하게 들리는 단서는 아원자 물리학 이론들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입자 가속기에서 어떻게 에너지와 물질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우 이색적인 춤동작을 보이는지 이미 관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몇몇 입자들은 정말로 이색적이다. 이상한 속성

들을 지닌 이 입자들은 실험으로는 쉽게 탐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폭발적인 핵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거대한 폭발 속에서 일어나는 입자들의 충돌 결과는 수학 모형을 통해서만 예측이 가능하다. 빅뱅은 무엇보다도 가장 극단적인 핵반응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색적인 입자들을 다량으로 생성했을 것이다. 이 입자들이 실증된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입자들을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3. 공허가 아닌, 무(無)의 총만

‘무(無, nothing)’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문화권에서 이름 붙여질 수 있고 범주화될 수 있는 ‘실재하는 사실’에 대한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비어 있는 공간을 중요시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를 지배해 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바이너(Witter Bynner)의 《노자(老子)에 따르는 삶의 길(The Way of Life According to Lao Tzu)》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선시(禪詩)는 그러한 관념을 그대로 반영한다.

삼십 개 바퀴살은 바퀴통 속 구멍 안에 하나 되며,
바퀴살 사이의 빈 자리 모여 하나의 바퀴를 이루네.
찰흙이 주전자로 빚어짐은 텅 빈 공허에서 비롯되니,
집의 문과 창문은 비어 있음을 쓰는 것이요,
결국 그것 그대로 쓰여 지지 않는 것의 도움 받음이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사상가들은 이 ‘아무것도 없음(nothingness)’을, 이름 붙여지거나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기묘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어 있음 또는 아무것도 없음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파스칼(R. T. Passcale) 교수가 인용문에서 지적한 ‘단순한 한 그 무엇’으로 생각된다.

파스칼은 그의 글에서, 실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식 업무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행정이 업무의 ‘비어 있는’ 공간들 내에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방식의 많은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가령 두 부서를 병합시킬 경우, 미국의 행정가들은 대부분 그 새로운 상황을 이름 짓고 객관화시키는 ‘선언’을 먼저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용인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어떤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행정가들은 주변 상황을 먼저 조성한다. 두 부서 사이의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면서 비공식적으로 병합시키고 고용인들이 새로운 조직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상황을 애매모호한 채로 둔다. 그러다가 고용인들이 그 변화에 적응한 후에야 비로소 그 상황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외부에 선언된다.

모호성은 어떤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미지의 장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인은 그것을 ‘마아(ma)’라는 말로 지칭하는데, 영어에는 그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그 단어는 사물의 알 수 없는 측면에 하나의 뚜렷한 위치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우리는 영어로 의자와 탁자 사이의 빈 공간을 비어 있다고 하지 않고 ‘무(無)로 꽉 차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는 재미있으면서도 논점의 핵심으로 가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미지의 것을 일차적으로 알려진 것을 참고로 하여 말한다(탁자와 의자 사이의 공간).

반면에 대부분의 동양 언어에서는 미지의 것이 갖는 빛을 경외한다.

4. 무극·태극은 하나(전체)이며 으뜸 자리다 (無極太極一元位)

무극(無極)은 노자(老子)가 말하였다. “그 밝음을 알고도 그 캄캄을 지키니 세상의 본보기가 되리라.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 늘 속알(얼나) 어기지 않으니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리라.”(復歸於無極-노자 28장) 허공인 무(無)쪽에서 보면 있다·없다 하는 물질세계는 있으되 없는 것이다. 별똥별처럼 있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을 있느니 없느니 할 것이 못 된다. 하늘에 별(天體)들은 제법 몇 백억 년씩 있다지만 영원 무한에는 비길 수조차 없는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극만이 존재한다. 무극에서 보면 나고 죽음이란 없다. 비롯도 없고 나고 죽는 상대적 생명이지만 얼로 거듭나면 얼나는 하느님의 생명이라 비롯도 마침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무극이 무(無)의 자리에서 본 절대라면 태극은 유(有)의 자리에서 본 절대다. 무(無)의 자리에서 보면 유(有)는 없지만 유(有)자리에서 보면 유(有)를 포용하고 있는 무(無)이다. 상대를 포용한 절대며 이것이 태극이라 한 것이다. 태극이란 말은 『주역』(周易)에 나온다. “바뀜(상대)은 태극에 있다. 이것이 양의(兩儀=陰陽)를 낳았다.”(易有太極是生兩儀-『주역』 계사 상전). 또 『장자』 대종사 편에도 태극이 나온다. “(얼은) 태극에 앞서 있으되 높다 안한다.”(在太極之先而不爲高-『장자』 대종사편)

류영모는 말하였다. “태극은 하나(전체)다 그런데 태극이 쪼개져 음양(陰陽)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태극은 영원히 하나다 음과 양은 참이 아니다. 음양으로 된 상대세계는 좋은 것 같으나 싫은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상대세계를 벗어나 절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대적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유무(有無)를 가지고는 절대적 존재를 헤아릴 수 없다.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는 절대존재는 상대적 존재의 유무(有無), 생사(生死)를 초월하였다. 침도 없고 끝도 없는 무(無)를 상대적 존재처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라 류영모는 ‘없이 있다’는 모순된 말을 썼다. 상대로는 없고 절대로는 있다는 뜻이다.

『노자』 1장은 “없는 것은 하늘땅의 비롯이고, 있

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다”(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이다.

무명(無名)이 무극(無極)이고 유명(有名)이 태극(太極)이다. 존재하는 것은 공(空)인 무(無)뿐이다. 유(有)는 무(無)의 변태(變態)이며 무(無)에 지양(止揚)된다. 그리하여 없(無)에서 있어지면 있다가는 없어진다. 없(無)은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지만 있(有)은 반드시 비롯이 있고 마침이 있다.

그러므로 얼 눈이 밝은이는 유(有)의 세계를 잠시 있다 사라지는 환상(幻像)으로 본다. 무(無)에서 유(有)가 나왔다가 다시 무(無)로 돌아가는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이 하느님의 존재 법칙이다 우리가 없다 있다는 무(無) 유(有)를 너무 쉽게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신비 자체이다.

풀잎에 이슬방울과 같은 무상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업신여길 수만 없는 신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빔(Emptiness) = 기능태 (Potentiality)

청정한 계곡상유에서 어린애가 쭈쭈쭈 오줌 싸던 시절의 물을 노자는 허(虛)가 있다고 말한다. 똥물이 트럭으로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물을 노자는 허가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어떻게 허가 공간개념일 수 있겠는가? 허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전제가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며, 실현되기 이전의 잠능(潛能)이며, 잠재태이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포텐시알리티(Potentiality)인 것이다.

노자는 도는 텅 비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텅 비었다는 말에 해당되는 용어가 충(沖)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기가 텅 빈 모습을 형용하는데 쓰이는 말이다.

5. 태극도설(太極圖說)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태극이 동(動)하여 “양”(陽)을 낳는데, 동의 상태가 지극하면

정(靜)하여지고, 정하여지면 “음”(陰)을 낳는다. 정
의 상태가 지극하면 다시 동하게 된다 한 번 동하고
한번 정하는 것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음으로 나뉘
고 양으로 나뉘어, “양의”(兩儀)가 맞선다. 양이 변
하고 음이 합하여 수(水)·화(火)·목(木)·금(金)
·토(土)를 낳는데, 이 다섯 가지 기(五氣)가 순
차로 퍼져서 네 계절(四時)이 돌아가게 된다.

나의 “음향”이고, 음향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
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의 생성시에 각각 그 성(性)을 하나씩 가져서,
“무극의 진(眞)과 이(二)·오(五)의 정(精)”이 묘하
게 합하여 융결되면 “건도”(乾道)는 남성을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성을 이룬다. 두 가지 기(二氣)가
서로 감화하여 만물을 낳고, 만물이 계속 생성함으
로써 “변화”가 무궁하게 된다.

6. 끈 이론

끈 이론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 중의 한 명은 프
린스턴 대학교 응용연구소 교수인 에드 위튼(ED
Witten)이었다. 그는 엉뚱하게도 다른 물리학자들
에게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별명은 이 분야
에서 그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지위를 인정받아 붙
은 것이다. 만약 끈 이론을 통해 통합 이론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의 동료들이 보기에 그 일
을 해낼 사람은 바로 위튼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에 위튼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이 끈 이론
의 합성 망에서 등장할 가능성 쪽으로 관심을 바꾸
었다. 그는 관련된 많은 방정식이 다른 방정식의 일
종의 거울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정
식의 짝을 이중성(duality)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확
인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 짝들은 각각 상이한 역할
을 하면서 상이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짝
의 방정식이 한 차원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 그
이중성의 파트너인 다른 차원에서는 약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위튼은 자신이 발견한 많은 이중성들을 한데 끌어

모으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중성들을 깨끗이 정돈할 수 있다면 사실 끈 이론의
‘중심 나무줄기’인 공통의 핵심을 드러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의미 있는 그림들
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끈 이론을 바탕으
로 연구한 자신의 방식을 ‘M이론’이라고 불렀다. M
이론은 끈 이론의 개정판인 ‘초끈 이론’(super
string theory)의 개정판이었다. 그는 모든 수학들
이 단순화될 때 다룰 수 있는 길이의 방정식, 즉 우
주의 시초의 동역학을 설명해줄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역사만큼이
나 오래된 문제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벽들의 또 다른 면에 있는 그림’
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즉 우리는 M이론
에서 등장한 방정식의 결과와 꼭 맞아 떨어지는 또
다른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등장하게 될 방정식이 그런 것이리라는 보장은 없
다. 등장하게 될 정리는 반복적으로 조사되고 검증
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잠정적으로만 인정을 받
게 될 것이다. 결국 과학의 장점은 실험을 통한 확증
없이 그 어느 것도 진리로 여겨질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을 입증
하는 실험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
다.

Ⅲ. 결론

미술에선 여백은 과학적으로 볼 때 암흑물질이며 우
주에는 암흑물질이 90%이상 존재한다고 한다. 즉, 우
주의 어둠은 빛(태양)이 없어 어둠이 아니라 암흑물질
이 어둠으로 보인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물질이다.
허공도 하나의 물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과학적
으로 끈 이론을 통해 통합이론으로 볼 때 우주는 유기
체처럼 하나로 연결된 물질 덩어리이며 새로 대두되는

전체론적 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 우주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체가 그 자체로 하나이다. 그리고 우주는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텔레파시, 염력(念力 : psychokinesis)-초감각적 인지(extrasensory perception : ESP, '사이'(PSI)현상, 원격투시(clairvoyance),실시간 원격투시(real-time clairvoyance), 육감(presentiment), 투시력, 예지력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원적(二元的, duality)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존재는 불이(不二, non-duality)이다. 즉 비이원적(非二元的)이다. 한 마디로 우주는 하나의 연결된 무한히 움직이는 무한 조적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하나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런 상태,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된 모습을 찾고 싶었고 우주의 하나 된, 서로 연결된 상태를 인간의 지문(指紋)에 나타난 선(line)과 곤충의 선에서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것으로부터 인간이 그린 선과 만든 선(오브제)으로까지 그 선의 개념을 확장하고 싶었다.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총체적이고, 무한한 물질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런 우주적 물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주는 살아있는 위대한 하나의 생명체이고 인간의 뇌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99.9% 신비속에서 허공, 여백들이 존재한다. 작품을 통하여 이런 신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 [1] 윤시순 “퇴계선집” 현암사 pp310-312, 1993
- [2] 김용욱 “노자와 21세기(上)” 통나무 pp192-193, 1999
- [3] 박영호 “다석 유명모 명상록” 도서출판 두레 pp274-275, 2000.
- [4] 유상구 “살아있는 에너지” (주)양문 pp67-69, 1996
- [5] 동아 사이언스 “스티븐 호킹의 우주” 도서출판 성우 pp162-165, 2001
- [6] 강은엽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리기” 미완 pp152-154, 1991.
- [7] 유상구, 전재용 “의식의 세계” 도서출판 양문 pp465-466, 1999